

MISSION ECUADOR

에콰도르 장다솔 전수미 선교사의 42번째 선교소식 2018년 8월

2018년 8월 중보기도제목

사랑하는 동역자님!

살롬~~

남미 에콰도르에서 문안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동역자님의 기도와 격려 속에 무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닌카이(Sinincay) 교회 및 어린이센터 건축도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씨닌카이 어린이센터 교실층 공사시작

씨닌카이 교회 및 어린이 센터 건축공사가 2개월 동안 잘 진행되어 지금은 2층 슬라브 공사 후 드디어 방과후 수업 교실 2개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본당과 어린이 센터 부속건물(급식용 주방, 화장실4개, 사무실 등)은 후원이 채워져서 이미 공사에 들어갔는데, 방과후 교실 2개를 짓고 마감하는 예산이 모자라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모자랐던 예산이 거의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역시 동역자님이 에콰도르 사역을 위해 계속 중보해 주신 덕분임을 믿습니다.



1층 본당 공사 중

1. 교회 및 어린이센터 건축과 사역을 위해 -

건축공사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현지인들과 함께 군청과 보건소와 여러 가정들을 심방하며 씨닌카이 지역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개신교인구가 거의 없는 씨닌카이 땅에서 9월 중 첫 어린이 예배와 급식과 방과후 수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동역자들을 위해 -

이번에 함께 지역조사와 심방을 다닌 인근교회의 존하이로 목사와 로레나 집사를 향후 스태프로 마음에 두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급식을 위한 자원봉사자(5~8명)와 방과후수업(영어, 수학, 공작 등) 강사들도 8월말까지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3.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 -

이번 6월에 대학을 졸업한 큰 아들 한이는 노동비자(Work permit) 수속 중입니다. 노동비자를 취득한 뒤 좋은 직장, 좋은 상관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 중인 둘째 아들 하늘이도 9월 초에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품을 떠난 타국에서의 두 아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 둘째 아들의 학비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층 공사에 이어 2층에 교실 2곳 건축 시작

에콰도르 꾸엥가에서 장다솔 전수미 올림

이메일 : ecuamor@nate.com

MISSION ECUADOR